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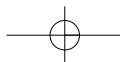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VOL. 29 + 2011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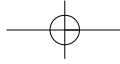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 서구의회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 개나리 길을 넘으며

글 / 한 숙 희

봄비가 스멀거리더니  
뒤져봐도 한 푼 없는 그 봄날에  
동구 길은 긴긴 인생 같아요  
틀어진 눈길을 돌아 방향을 바꿔도  
봄날은 여러 색으로 여기저기  
도전으로 꿈틀거려요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그 후미진 구석으로 노란빛이 눈부시고  
회오리를 되감고 버려온 줄기는  
믿음을 먹고 여태 자라고 있었나 봐요  
그건 사랑이었다며  
꽃 손을 꼭꼭 누르며 기다렸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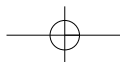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물론 저도 즐기려 했지요  
꽃구경 하면서  
열망에 들떴던 몸뚱이를 그려보려 했지요  
안개비에 젖은 새벽 산야 속으로  
꽃들의 정사를 훑쳐보려 했지요  
여전히 개나리는 움짙었지만  
그 지난 열망은 자꾸 의심으로 병들어가요  
숲길 건너 마을이  
황사에 휘말려도  
봄빛은 여전히 출렁대고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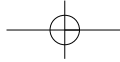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한숙희 약력

- 서울산업대 금속공예학과 졸업
- 한국미술협회 회원, 인천미술협회 회원, 글로벌 신조형, 녹우회, 인천 서구 미술인회, 한국문협 인천지회 회원, '인사동시인들' 회원, 산림문학 편집위원
- 시집 '청색으로 물든 저녁'

주소 : 인천시 서구 연희동





# Contents

## 서구의회보

VOL. 29 + 2011 April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발행일 2011년 4월

발행인 의장 김영옥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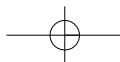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곡로 307(삼곡동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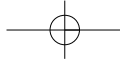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전 화 032-560-5852 | FAX 032-561-4336

홈페이지 <http://assembly.seo.incheon.kr>

- 04 의장 인사말
- 06 서구 이슈
- 08 의원 기고문
- 14 의정포토
- 21 171회 임시회 심사결과
- 22 172회 임시회 심사결과
- 23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27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 29 언론에서 보는 서구 의회
- 33 의원동정
- 36 상임위원회
- 37 전직 의장에게 듣는다.
- 39 공무원 한마당 + 글을 쓰는 까닭  
+ 쌍둥이, 그 중에 딸아이 이야기
- 42 함께 사는 세상 + 커피뽕뽕, 열아홉 승미의 사부곡
- 43 꼭 알고 넘어가자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0가지!!
- 44 서구 명소 + 검단선사박물관
- 46 유용한 정보 + 마실거리 야외무대 무료 사용신청 안내
- 47 우리동네 이야기 + 석남2동 거북골 도서관 개관
- 48 봄철 건강관리 요령
- 51 경제 총조사 +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 54 투고 안내
- 55 의회 방청 및 청원제도 안내

- 본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김 영 옥  
서구의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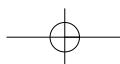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겨우내 얼었던 대동강이 풀리고 동면하던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우수·경칩도 지나 남녘에서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반가운 꽃소식이 전해오는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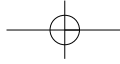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의 발생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안타까운 참화였다고 생각하며, 금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는 유족들과 불의의 화를 당하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최근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세계정세의 변화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오일쇼크에 의한 세계경제의 위기설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위기 관심단계 발령 이후 지난 2월 27일에는 주의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고유가 시대에 따른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정부시책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 동참하여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으며, 금년 3월 현재 347만 여두의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가시적인 피해액만 약 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의 오염, 악취발생 등은 제2의 환경오염을 예고하고 있는 바, 집행부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매몰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포근한 봄바람과 함께 산과 들을 찾는 행락인파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빙기를 맞이하여 노후한 담장과 옹벽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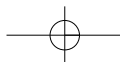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우리 서구는 인천의 변방,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교통의 요충지,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입체적 복합도시, 쾌적한 신흥개발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굵직한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우리 서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문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 위주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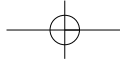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2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는 우리 서구가 세계로 응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민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서구의회의장 김 영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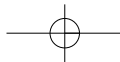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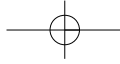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서구이슈 | 서구의원 수도권 매립지공사 시찰



서구이슈

Issue





## 서구의원 수도권 매립지공사 시찰

서구의회 “주민의사 고려치 않는 사업진행 부당”  
매립기간 연장, 악취 해결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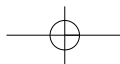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회의원 14명은 2011년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조춘구 공사 사장에서부터 매립지 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과 제2쓰레기매립지, 환경에너지 타운, 침출수 처리장 매립지 발전소 등을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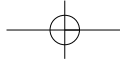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의원들은 재투자 없이 드림파크, 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홍순목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를 세계 최대, 최고의 환경단지로 만든다고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규모의 매립지가 주변에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상섭 의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권 주민에게 돈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어 서구의회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부단체장과 환경부로 구성된 해안조정위원회에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원·기·고·문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중심도시”, “첨단입체복합도시”를 모토로 시작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현상황은 어떤가?

가정동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구도심 재생의 희망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에 대해 여간 실망이 아니다.

당초 계획은 대부분 사문화(死文化) 되었고 여타 사업들은 요원한 상황이며 주민들의 주거상황에 있어서는 마치 미니 쓰레기 매립장을 보는 듯, 철거현장의 실태와 그 관리는 아직 이주하지 못한 주민이나 주변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다.

또한, 일간지를 통하여 수차례 보도되었듯이 철거 과정에서 석면처리의 부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을 보았을 때 거주 주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에는 무관심한 사업 시행자 및 감독자의 태도는 오히려 현 상황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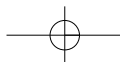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 “루원시티(LU1 CITY) 입체적 도시공간으로 디자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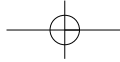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문 천 환 | 인천서구의회의원

지난 날 가정오거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서구가 인천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시절 서구에 있어서 가정 오거리는 교통·생활의 중심지였다. 그 이후 검단이 서구에 편입되고 가정 뉴타운 개발 등 서구의 발전상이 가시화 되면서 일약 가정오거리는 인천의 지정학적 중심지이며, 사통발달의 교통요충지, 국제적 관문의 위상을 다져 나갔다.

이와 같이, 가정오거리는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나아가 북부 수도권 중심지로 인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구상이 앞 다투어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 한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간선급행버스(BRT),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청라경제 자유구역 등이 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금방이라도 신세계가 눈앞에 잡힐 듯 큰 기대를 가지게 해놓고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쪼그라들어 일명 “유령도시”를 우리는 지금 서구의 한복판에 방치해 두고 있는 꼴이다.

물론 국책사업과도 연계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에 있어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겠지만 2005년 가정뉴타운개발 타당성 검토에서 충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지금에 와서는 루원시티 내 상업·업무 지역을 축소하고 그 동안의 사업지연으로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거지역을 늘리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정오거리 부근 교차로만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평면화로 하는 구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어찌 「입체도시」인가? 기존의 「평면도시」라 불리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업·업무시설은 수요를 감안한 사항이겠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주변 대규모 주거시설 신축상황과 현재 부동산경기로 보았을 때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히려 역시너지효과(2+2=3)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계하고자 인천시청을 가정오거리로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었듯이 현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인천시가 남부권의 인천버스터미널처럼 서북부의 신 터미널 복합환승센터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오거리가 복합환승센터로 결정되면 현재 건설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간선급행버스(BRT)를 연결하고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간의 원활한 환승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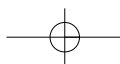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이 사업은 가정오거리에 반드시 유치해야 할 사업이다.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서구 주민 모두의 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야 루원시티의 면모에 맞는 컨셉을 찾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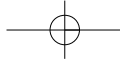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천시와 LH공사는 인천의 구도심 재생의 성공여부는 루원시티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가의 루원시티 토지에 주거용 아파트를 늘려 건설한다면 엄청난 분양가에 분양률은 저조할 것이며 막대한 적자가 재차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가정오거리를 지켜왔던 원주민의 재입주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눈앞의 경제여건만을 따지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투자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견지하고 한 번 건설하면 반영구적인 가치를 가질 루원시티를 중심상업지구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루원시티의 개발이 더 이상 “유령도시”라는 오명으로 불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는 더 이상 루원시티의 위상을 훼손하지 말고 향후 인천을 뛰어 넘어 북부수도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것을 예지해야만 한다.

인천시가 들끓는 지역주민의 원성을 바르게 듣고 아우르는 통큰 결단을 내리기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의원기고문 |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변경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변경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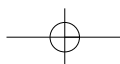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이 상 섭 | 인천서구의회의원

지난 3월 14일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일원동 주변의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고시를 했다. 매립목적이 ‘쓰레기 매립’과 ‘경인아라뱃길 조성’, ‘공공시설 조성’으로 정해졌다.

현재 이 지역은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양수한 지역으로, 1,40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서울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우리의 심각한 환경오염방지에 재투자하지 않아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문제의 부지이다.

따라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승인한 공유수면매립 변경승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1992년 이후 폐기물이 반입된 이후 1일 1,500여대의 16,000톤의 쓰레기가 우리 서구에 묻히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서구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위해 부지매각대금을 서울시는 독점했다. 서울의 쓰레기 냄새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맡고 살아야 하는 서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쓰레기 매립지를 더 넓히는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서울시는 2016년까지 정해져 있는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어 이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협정서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은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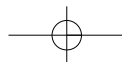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고, 매립지 처분이익은 매립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게 되는데 결국 쓰레기매립과 관련한 관리,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지출하고 그 이익은 서울시가 챙긴다는 뜻이다. 우리 서구 주민들의 쓰레기반입료나 쓰레기 봉투값 인하와 같은 작은 혜택도 거부하면서 인천시민의 세금은 지출하고, 쓰레기 냄새는 도맡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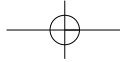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둘째, 지난 2010년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났다. 이 법에 의해 건설된 터미널부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지자체로 귀속되어 결국 지자체가 그 유지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개발이익의 90%가 중앙정부로 환수되거나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의 개발비용 등은 개발이익의 환수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아라뱃길 주변에 대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차원의 개발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주변에 대단위 주거타운을 조성할 경우 우리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단신도시, 청라지구, 루원시티 등의 주택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눠 갖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장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히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에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에게 심대한 걱정을 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인천에서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못한 ‘나’부터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천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에 있는 분도 있다. 인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서구의 이익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서구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중앙정부의 결정과 인천시의 무대책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40만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소상한 상황과 인천시의 대책을 밝히고, 더불어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전쟁’에 대한 중앙 정치인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의원기고문 | 지역 주민에 귀 막은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추진과 반대 의견 사이에서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되었던 경인운하 사업이고 보면 시행 결정 이후의 신속한 추진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추진의지가 각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올 10월 경인 아라뱃길 공사가 완공되면 아라뱃길을 따라 운행되고 있는 공항 철도·신공항고속 국도와 함께 수로·철로·차로 등 3대의 교통로가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공항철도 2단계가 완성되면서 계양역과 검암역에서 열차를 타면 서울역과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되었다.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에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검암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기대분위기가 지역 발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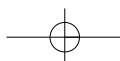
# “지역 주민에 귀막은 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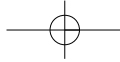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홍 순 목 | 인천서구의회의원

그런데 최근 아라뱃길이 갈라놓은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주도로 서곶로와 장제로 상에 건설 중인 시천교와 굴현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구체화 되었다. 아라뱃길 북부 지역에서 검암역과 계양역으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이다.

아라뱃길 북부지역 주민들이 두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도로를 상당거리 더 나아가 유탄을 통해서 되돌아와야 한다. 다시 역에서 북부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중교통버스의 접근도 제한된다. 이용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서곶로와 장제로의 교통 체증도 예견되는 문제이다.





인천시와 서구·계양구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부지역에서 두 역에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수자원공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다.

사막에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 원자력을 수출해 내는 나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하니 어느 누가 진정성 있는 이유로 받아 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예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든 예산상의 문제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현행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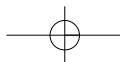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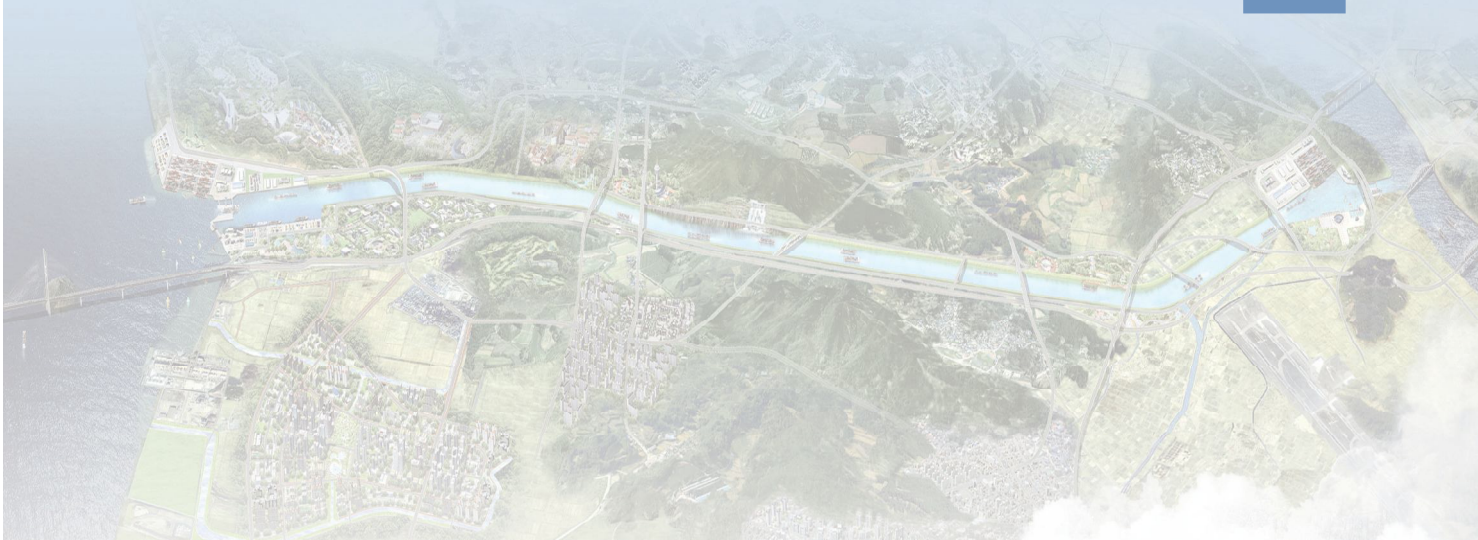
지역의 요구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피해 가려고 하는 수자원공사 측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역에 멋진 물길을 만들어 주는데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더더욱 용납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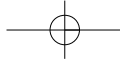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그들은 넘실대는 물길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들의 멋진 장관을 상상하고 웅장하게 건설될 교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지역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생각하면 무거워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책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세심히 반영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 지나오지만 왜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이고 해결 방법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 공사 측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의정 포토 | PHOTO



### 2011년 서구민 새해맞이 축제

서구의회의원들은 새해첫날  
원적산 정상에서 열린 '신묘  
년 새해맞이 축제'에서 구민  
들과 함께 첫 일출을 바라보  
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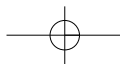
### 2011년 신년인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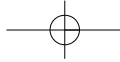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서구의회의원들은 1월 4일  
의장실에서 새해인사와 서구  
발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구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약속하였다.



### 인천서구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

서구의회 의원들은 1월 10일  
인천서구 발전협의회 임원진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반대와 관련한 토론의 자리  
를 가졌다.





### 제22회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 정기총회

서구의희의원들은 1월 22일 서구 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서구 약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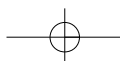
### 제10대 생활체육 인천시 서구연합회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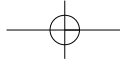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서구의희 의원들은 1월 23일 제10대 생활체육 인천시 서구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제23차 인천서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서구의희 의원들은 1월 24일 인천서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 포토 | PHOTO



**설맞이 낙원요양원 방문**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과 김병근 의원은 1월 25일 낙원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들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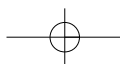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설맞이 인정재활원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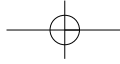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서구의회 의원들은 1월 26일 인정재활원을 방문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격려하며 시설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였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관련 간담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월 8일 복지도시위원회실에서 시행사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수도권 매립지 현안사항 논의에 따른 의원간담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월 9일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윤하연 박사를 초청하여 매립기간 연장반대 등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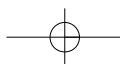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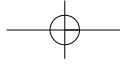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 제6·7대 서구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서구의회 의원들은 2월 15일 서구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서구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의정 포토 | PHOTO



의정포토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서구의회 의원들은 2월 23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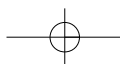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 서인천 청년회의소 임직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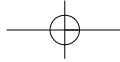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3월 4일 서인천 청년회의소 임직원들과 서구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세어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최종보고회

서구의회 의원들은 3월 8일 세어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개정 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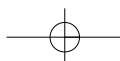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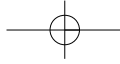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 서구 주민자치위원 자체교육

서구의회 의원들은 3월 24일 열린 서구 주민자치위원 자체교육에 참석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 권 / 위 / 포





의정 포토 | PHOTO



###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서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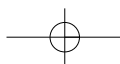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 정서진 지정 추진관련 설명회

서구의회 의원들은 3월 30일 정서진 지정 추진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여 경인아라뱃길과 정서진을 연계하는 관광 명소 개발을 당부하였다.



### 경인 아라뱃길 주민 설명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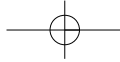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서구의회 의원들은 3월 31일 열린 경인 아라뱃길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결과

■ 총건 : 총11건 / 조례 4건[기획총무], 규칙 1건[의회운영], 기타 6건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심사 결과
1678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의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형렬 의원 외 9인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원안 가결
1679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
1680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인재육성과)	수정 가결
1681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세 무 과)	원안 가결
1682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경제지원과)	"
168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원안 가결
1684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찬성 의견 채택
1685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
1686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
1687	롯데우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
1688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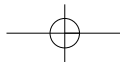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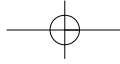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제172회 임시회 심사결과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결과**

■ 총건 : 총8건 / 조례 8 [기획총무 5 /복지도시 3건]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심사 결과
1667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우 의원 외 6인	기획총무 (인재육성과)	부결
1689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외 7인	복지도시 (건축과)	수정 가결
1690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원안 가결
1691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수정 가결
1692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총무과)	원안 가결
1693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세무과)	"
1694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토지정보과)	수정 가결
1695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토지정보과)	"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유치원 원장과의 간담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1월 14일 오후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내 유치원 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형렬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구의원 및 유해숙 안산1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청자 서구유치원 연합회장을 비롯한 20여 관내 유치원 원장이 참석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 유해숙 교수는 아동복지의 의미와 실천방향의 제목으로 아동복지의 중요성 및 아동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유치원 원장들은 현실적인 아동복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에 힘써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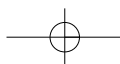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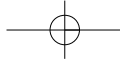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김영옥 의장, 구제역 상황실 방문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1월 20일 전년성 서구청장 및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구청에 설치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살 처분 및 방역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영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 서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 발병으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며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서구의회 의원들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마전동에 위치한 민들레요양원, 해피실버요양원 등 10곳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이에 시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외부의 손길이 점점 끊기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무의탁 입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영옥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시설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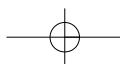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 ●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관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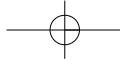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2월 9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의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강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구의원 및 구청 관련 부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윤하연 강사는 수도권매립지 연혁 및 현황,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도권매립지 내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추진사항,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의 목적 및 쟁점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약 1시간동안 강연을 하였다.

이날 참석한 구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약취, 먼지, 환경에너지타운조성,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문제 등에 대해 질의 및 우려를 표했고 매립지 관련 대처방안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서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서구와 서구의회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안길원)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해 구는 100만원, 구의회는 50만원을 모금했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이날 함께 한 봉사회 서구지부협의회 회원들과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도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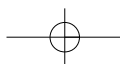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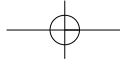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 ●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공사 현장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환경종합에너지타운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를 현장 방문하였다.

먼저 오전에 방문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조춘구 사장을 상대로 복합악취, 대기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고, 매립지문제 제로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방면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제2매립장,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를 방문하여 폐기물소각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방문하였다.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서구의원 정보화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지난 3월 4일 서구청 본관 지하1층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의원 정보화 교육(트위터, 페이스북)을 받았다.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이번 정보화 교육에서 의원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을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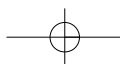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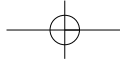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전·현직 의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지난 3월 4일 서구 관내 음식점에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4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서구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전직 의원들과 제6대 현직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의원들 간에 서구의회 의정방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1대부터 6대 의원 소개 및 상견례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앞으로 지역 현안사항의 의견 수렴 및 해결,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다.





#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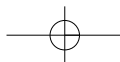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 I 기본방향

- 2011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 수시로 위원회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전체조례(195건)에 대한 검토 및 정비추진
-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의원발의로 조례 제·개정 추진

## II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011. 3. 18 ~ 12. 31 (289일간)
  - ※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구성인원 : 총 10명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5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5명
- 활동내용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 및 현황조례 검토 분석
  - 정비대상 조례선정
  - 의견수렴 : 집행부 및 관련 직능단체
  - 정비대상 조례확정
  - 심사·정리 및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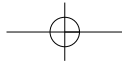
조례개정 | 특별위원회 구성

Ⅲ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위원 현황		연구·검토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순석	총195건 (서구조례183건, 서구의회조례 12건)
	간사	강상원	
	위원	김진규	
	"	문현주	
	"	문천환	
	"	박구	
	"	박형렬	
	"	이상섭	
	"	정일우	
"	이윤숙		

Ⅲ 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계획

항목	내용	기간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검토</li> <li>- 타 시·군·구 조례정비 현황 파악</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li> <li>●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규에 대한 토론 및 자료요청 등</li> </ul> </li> </ul>	2011년 3월~8월
자료분석	● 수집자료 검토 분석	2011년 7월~9월
정비대상 선정	● 정비대상 조례선정	2011년 9월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 해당부서, 직능단체 등</li> </ul> </li> </ul>	2011년 9월
정비대상 확정 및 심사	● 정비대상 조례확정 및 심사	2011년 10월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개정·폐지 발의</li> <li>● 발의안 본회의 상정</li> </ul>	2011년 11월~12월



# 언론에서 보는 서구의회

중부일보

2011년 01월 07일 금요일 006면 종합

##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에 온힘”

“제대 의회가 한층 성숙하고 내실있는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의회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회 김영옥 의장은 “올 해에는 내실있는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제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지난해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짚는다.”

▶ 제대 의회는 한층 성숙하고 내실 있으면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위원회,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하려면 구민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올해 의회 운영 방안은.

▶ 의회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변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주축이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이 제기하는 문제와 지역발전 사항은 바로 구의회와 집행부 인 등시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정들은 먼저 구민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낯익은 의회 문화를 통해 구민들과 대의의 정을

따면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론을 펼칠 수 있으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구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60%를 넘는다. 경험 부

●●

구민이 제기하는 문제와 지역현안은 바로 구의회의 문제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특한 의원을 위한 의정 활동 지원 방안은.

▶ 이번 의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지역 구정활동이 모든 의원이 새로운 각오와 열의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구민이 제기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원 간수 활성화와 전문가 초청 특강, 연구회

는 의정 환경 조성 등 의원의 역량을 높여주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구민에 봉사하겠다는 의원의 사랑감이라는 태도를 보고 있고 젊고 패기 있는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앞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의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참여하는 구민, 소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제대 서구의회는 올해 본격적인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소통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이끌겠다. 서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저렴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기업의 생계를 위해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회 차원의 노력과 역할을 겸임시켜 나갈 것이다.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 계획은.

▶ 교민은 백년지대계다.

▶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 없는 교육실현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 및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물론 외국어 교육의 성공적인



서구의회 김영옥 의장



서구의회, 복지시설에 격려품 전달

운영을 위한 외국어 교육특구의 지속적인 지원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직업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서구의 교육의 정상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서구의 교육환경을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최상의 재료를 찾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길 상으로 바란다. 구 의회가 구민 대표기관으로서 과 의정활동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변할 것이라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최철기기자/socho@nongae.com

서구의회는 설을 맞아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김영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마천동에 위치한 민들레요양원, 해피실버요양원 등 10곳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외부의 손길이 점점 끊기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무의탁 입소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영옥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시설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고기자/ps2830@socho.com

경도신문

2011년 01월 11일 화요일 001면 종합

## 아라뱃길 검암·계양역 접근성 해결 촉구 “대규모 집단 행동 불사”

교량 위 버스정류장·환승체계 미련 요구



서구 출신 국회의원 김포시 조승현 의원

인천 서구의회 김영옥 의장은 17일 오후 12시 정·현직 의원 20여명(당초 20명, 사퇴를 맞아 전직 의원들과 지내내 발전에 관한 현안 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량 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것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버스 이용자와 도

역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일보

2011년 01월 17일 월요일 011면 의회&공무원

### 김영옥 인천 서구의회 의장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강인일보

2011년 01월 31일 월요일 005면 사치/의정

“폭력의학” 열목지기 나선 인천 서구

## 구의원 전원 소양교육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김영옥(65·여·새선) 인천 서구의회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도중 발생한 여의도역 안전사고에 대해 의원들이 같이 반성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역사 사건의 정의를 위하여라도 소양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3주에 걸친 소양교육을 통해 한 의원은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3주에 걸친 소양교육을 통해 한 의원은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옥 인천 서구의회 의장

김 의장은 “유아시설에 수감자가 서구에 들어서는데 경기지방이 아니라 어떤 시설도 중화해 생각된다”면서 “경명공고와 명동거리 조성 예산은 어떻게 낭비를 겪고 있는 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석남동과 가좌동이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도로 갈라져 있다”면서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앞방에는 필수인 만큼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유아시설에 수감자가 서구에 들어서는데 경기지방이 아니라 어떤 시설도 중화해 생각된다”면서 “경명공고와 명동거리 조성 예산은 어떻게 낭비를 겪고 있는 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석남동과 가좌동이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도로 갈라져 있다”면서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앞방에는 필수인 만큼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06면 종합

## “무분별한 해외출장 금지” 서구의회, 심의기능 강화

민간위원 참여확대·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회의 3명)에서 7명(민간인 4명, 구의회 3명)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수와 시민사회단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도 ‘1/2’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심의위의 의결절차도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고 심의위 회의록 및 국외여행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늘리는 등의 정책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철기기자/socho@nongae.com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회의 3명)에서 7명(민간인 4명, 구의회 3명)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회의 3명)에서 7명(민간인 4명, 구의회 3명)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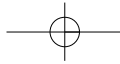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회의 3명)에서 7명(민간인 4명, 구의회 3명)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무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

회의 3명)에서 7명(민간인 4명, 구의회 3명)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 언론에서 보는 서구의회

**강도일보** 2011년 02월 09일 수요일 008면 지역

## 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회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인천신문** 2011년 01월

## 가현산 약수터 앞에서

인천서구 경안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높이 215미터의 명산 가현산이 있다. 이곳에 오르면 강와 영종 파주 등 멀리까지 볼 수 있다. 특히 가현산 정상에서 서쪽 바다 쪽으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가히 명품이다. 저녁노을에 비껴 보이는 고기잡이 배의 돛대가 한 폭의 그림 아름다워 그림

인천서구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홍순목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기포일보** 2011년 02월 28일 월요일 003면 종합

## 매립지 수송도로 주민들 피해 인천서구 권한 없어 속수무책

부분 서물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매립지 수송도로도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서구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들어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1994년에 체결된 현안사는 수도권

**기포일보** 2011년 01월 17일 월요일 008면 지역

## 교통 불모지서 '사통팔달' 도약 지역 발전 희망 심기 역량 집중

홍순목 구의원 1994년 체결 협약서 개정 촉구

수도권을 위해 수송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행정적 관심이 없기 때문

35년간의 공적생활에서 기다들은 행정력으로 인천시 서구에서 재선에 성공해

◆ 인터뷰 / 김영옥 구의장

**중부일보** 2011년 03월 11일 금요일 006면 종합

## 서구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

18일부터 8일간 제172회 임시회 집행부가 부의한 '서구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개정조례안', '서구 저탄소

**기포일보** 2011년 03월 02일 수요일 008면 종합

## '유령도시' 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이권 약속 '불거품'...사업 담보상대 뒤 쓰레기더미 방치...치안-위생대책 시급

**중부일보** 2011년 03월 10일 목요일 102면 종합

## 서구, 세어도 유원지 타당성조사 보고회

인천 서구는 세어도 유원지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서구 세어도 유원지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세어도 유원지 조성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 세암·유양형 관련기가 있는 테마를 다룬 다양한 의견도 어드를 찾는 여의도의 편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

최상철 기자

**기포일보** 2011년 02월 09일 수요일 004면 종합

## 인천 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청라소각장 현장방문 등 일정 시작 "국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서구의회, 10일부터 인천시 서구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10일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일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18일에는 최근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청라소각장 등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공무국과여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비롯해 서구회장이 제출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라소각장 지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정운영 등 3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회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남구의회, 16일까지 "국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남구의회는 8일 2011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0년도 국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되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호조례안, 인천광역시 6개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중부일보** 2011년 03월 10일 목요일 102면 종합

## 서구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

18일부터 8일간 제172회 임시회 집행부가 부의한 '서구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개정조례안', '서구 저탄소

**기포일보** 2011년 02월 09일 수요일 004면 종합

## 인천 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청라소각장 현장방문 등 일정 시작 "국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서구의회, 10일부터 인천시 서구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10일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일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18일에는 최근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청라소각장 등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공무국과여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비롯해 서구회장이 제출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라소각장 지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정운영 등 3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회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중부일보** 2011년 03월 10일 목요일 102면 종합

## 서구, 세어도 유원지 타당성조사 보고회

인천 서구는 세어도 유원지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서구 세어도 유원지 조성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 세암·유양형 관련기가 있는 테마를 다룬 다양한 의견도 어드를 찾는 여의도의 편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

최상철 기자

**기포일보** 2011년 02월 09일 수요일 004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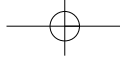
## 인천 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청라소각장 현장방문 등 일정 시작 "국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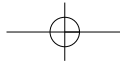
서구의회, 10일부터 인천시 서구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10일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일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18일에는 최근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청라소각장 등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공무국과여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비롯해 서구회장이 제출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라소각장 지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정운영 등 3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회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전 마초교 사측 주택개발정비구역의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 언론에서 보는 서구의회

2011년 03월 09일 수요일 007면 중첩

## 주민불편 조례 발굴·개정 서구의회, 연말까지 정비

문순석 위원장 등 특위 구성  
인천 서구의회가 올 연말까지 불  
필요한 각종 조례 정비에 나선다.  
서구의회는 최근 9명의 위원들  
로 '서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특위)를 구성, 이달부터 올해말  
까지 모두 9개월간 조례 정비에 나  
설 계획이다.  
이에 특위는 위원장에 문순석 의  
원, 간사에 강상원 의원을 각각 선  
출했다.  
특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의 일부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고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킴에 따라 각종 조례에 대한 온  
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주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실현에 발  
맞춰 나갈 예정이다.  
조례정비와 관련, 특위는 21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  
어 조례정비 운영계획을 마련했으

## “대다수 주민 변경 원한다” 정일우 서구의회 부의장,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동  
네 이름이 연희동이니, 경서동  
이니, 원창동이니 하는 애길 들  
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대체  
무슨 애길 하는 건지 처음엔 이  
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정 부의장은 “동네 구분이 아  
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 게 아  
니라 불교와 무토로 잘라 놓아  
갈리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부의장은 현재 3개  
로 포개진 청라지구의 법정동을  
하나로 합치고 명칭도 행정동  
명칭처럼 ‘청라동’으로 통일시  
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나래 청라동 주민센터가  
정체성, 소속감 등과 밀접한 사  
안인 만큼 이 문제는 합리적적  
으로 풀려야 합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 행정  
동 명칭 변경에 대한 행정안전  
부 승인을 받아낸다는 목표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를



청라국제금융도시 아  
닙니까? 비  
단 재산권  
문제가 아  
니 더 라도  
정주지역에  
대한 애정.  
정체성, 소속감 등과 밀접한 사  
안인 만큼 이 문제는 합리적적  
으로 풀려야 합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 행정  
동 명칭 변경에 대한 행정안전  
부 승인을 받아낸다는 목표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를

2011년 03월 25일 금요일 006면 중첩

2011년 03월 24일 목요일 010면 오페리언

## 인천 서구의회, 연말까지 불필요한 조례 정비 착수

인천시 서구의회가 올 연말까지 불필요  
한 각종 조례 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9명의 위원들  
로 '서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특  
위)'를 구성,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9개월간 조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특위는 위원장에 문순석 의  
원, 간사에 강상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일  
부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해 주  
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에 따라 각종 조례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실현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특위는 최근 조례정비와 관련,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조례정비 운

## 청라국제도시와 법정동 통합

로 국제금융 및 국제  
\*, 레저 등을 특징으로  
문수로 인천로봇랜드,  
관, 테마형 골프장, 침  
차해단지 조성 등 비특  
'치'를 통한 국제금융  
3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라렛길 공사가 순조  
로 이루어져 있다. 상  
합될 예정이다.

다. '한국의 베네치아', '세계적인 국  
제 금융단지 조성' 등의 분량강도를  
받고 입주할 청라 입주주민과  
예정자들에게 실감할 수 있을 것  
이다.  
지난해 6월부터 1-1지구 5개 아파  
트 단지가 완공돼 2천500여 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도 12개 단지 6천600  
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청라국제  
도시 이미 지난해 6월 청라동 주민  
센터가 개청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청라 주민들은 전입 신고  
를 하는 순간 혼돈에 빠지고 있다.  
연희동으로 표기해 나오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지역은  
법정동이 연희동 지역이다. 상  
합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마다 동 구  
는 다른 계획에 맞게

2011년 03월 21일 월요일 002면 중첩

2011년 03월 09일 수요일 007면 중첩

## 청라지구→청라국제도시 변경촉구

### 인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 신상발언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은 18일 열린 서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청라경제지구의 통상명칭을 '청라국제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3개 경제 자유구역 중 송도와 영종지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프로젝트상 명칭인 '청라지구'라는 단순명칭으로는 소규모의 개발 지구 정도로 오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개발촉진에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로 명칭 변경이 필연적인

관관유림과 다. 청라가 개발되어 계적인 국분양과 고경지들에게 된다.는는 특히 서을 위한 행 지난해 6개청했다. 이미 2했고, 올해여 가구 입주민이 청라가 아되기 때문 입주민들 도 통합을 을 밝혔다. 인천경찰의

순리라고 주장했다.  
청라지구는 17,783m2(약 541만평)로 9만 명의 상주인구로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서, 연희, 원창동 일대를 합쳐 보면 관교신도시의 2배, 광교신도시의 1.6배에 달한다. 인천시와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국제금융 및 국제업무, 관광, 레저 등을 특징으로 한 우 수수로, 로봇랜드, 외국인교 육기관, 테마형 골프장, 첨단산업 및 화해단지 등의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주변에는 경인아라렛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안에

## 주민 “청라동으로 통일시켜야”

청라지구, 연희·경서·원창동 등 3개 법정동 존재 - 혼선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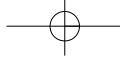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법정  
동 3개로 나뉘어 지는 사실  
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  
까.  
청라지구의 행정동은 '청라동'  
이지만 법정동은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어 혼  
선을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하면서  
청라지구 입주주민들이 현재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으로 혼재돼 있는  
법정동의 명칭을 '청라동'으로 통  
일시켜야 한다는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법정동이 혼재돼 있는 청라  
지구를 관할하는 인천시 서구의 자  
치행정기관은 청라동 주민센터이  
다.  
행정동은 청라동이지만 동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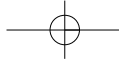


청라지구의 행정·법정동 경계(연색)와 청라구 서구의회 부의장이 변경 추진 중인 법정동 조정안.

등분을 할 때 확인되는 법정동 명  
칭은 3개로 재각각이다.  
청라지구 입주주민들은 '현재 추  
진되고 있는 법정동 명칭 전환 주  
민운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  
시키자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

라고 말했다.  
정일우 인천시 서구의회 부의장  
은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 법정  
동 명칭 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적 절차가 나설 상태다.  
▶그림 출처▶  
www.02020202.com





▶▶ Seo-gu Incheon Council

# 의원 동정



**김영옥 의원**  
서구의회 의장

## \* 인천서부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개원식 축하

김영옥 서구의회의장은 2월 28일 인천서부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인천서구지역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일우 의원**  
서구의회 부의장

## \*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정일우 서구의회 부의장은 3월 24일 열린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투명하고 적절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구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 \* 서구의제21 제4기5차 운영위원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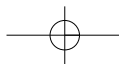
박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월 22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구의제21 제4기 5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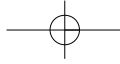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문현주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 \* 심곡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문현주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은 3월 9일 심곡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도서관운영사업에 대해 심의하면서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의원 동정



**이상섭 의원**  
복지도시위원장

## \* 서구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대축전 참석

이상섭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은 3월 27일 서곶근린공원에서 열린 2011 서구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 대축전에 참석하여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진규 의원**  
서구의회 의원

## \* 민들레요양원 위문

김진규 의원은 1월 24일 민들레 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더 나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종민 의원**  
서구의회 의원

## \* 해피실버요양원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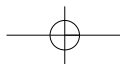
이종민 의원은 1월 24일 해피실버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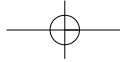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홍순목 의원**  
서구의회 의원

## \*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 참여

홍순목 의원은 3월 15일 검단사거리에서 열린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에 참석하여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행사참여자들에게 노고에 격려를 하였다.





**문천환 의원**  
서구의희 의원

**\* 2011년 제1차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문천환 의원은 2월 21일 2011년 제1회 평생교육협의회에 참석하여 인천 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관계자들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박형렬 의원**  
서구의희 의원

**\*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 참석**

박형렬 의원은 2월 22일 서구노인 인력개발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노인 일자리 대안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상원 의원**  
서구의희 의원

**\* 정서진 지정추진위원회 창립회의 참석**

강상원 의원은 3월 31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열린 정서진 지정추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하여 정서진이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순석 의원**  
서구의희 의원

**\* 2011년도 제1차 서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

문순석 의원은 2월 16일 열린 제1회 서구립예술단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규단원 위촉 및 서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연임건을 심의하고 서구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병근 의원**  
서구의희 의원

**\* 큰 말씀 요양원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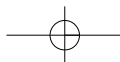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김병근 의원은 1월 25일 큰 말씀 요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봉사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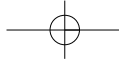


**이윤숙 의원**  
서구의희 의원

**\* 보육시설 연합회 서구지회 신년 하례식 참석**

이윤숙 의원은 1월 28일 검단컨벤션 웨딩홀뷔페에서 열린 인천정부지원 보육시설연합회 서구지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여 보육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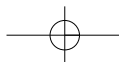
### 의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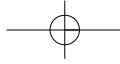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 기획총무위원회



### 복지도시위원회





# 전직 의장에게 듣는다



■ 제2대 조길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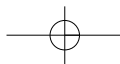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우리 서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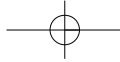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서구의회의 나이도 20살 성년의 나이로 성숙된 의회상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그동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년전 서구의회가 출범한 후 역대 선배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많은 난제와 싸우며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데 대해 높은 평가와 공로를 존경해야 된다고 보며 역대 의원들이 같고 닦아놓은 초석은 현재의 후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의원의 연봉제 실시로 의원들도 명예와 함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부여해 준 임무와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연봉제 실시 전 선배의원들은 무보수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의원들은 주민의 혈세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역대 의회와의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 전직의장에게 듣는다

踏雪野中去 /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不須胡亂行 /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今日我行蹟 /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西山大師)

우연히 접했던 서산대사의 시(詩)처럼 절대 뒷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후배의원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발자국은 남기고 지우기는 쉽지만 내일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남겨서도 지워서도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구민이라는 들판에 남긴 우리 발자국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구민과 역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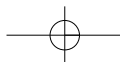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따라서 선배의원으로서 사랑하는 후배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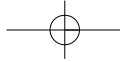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지방의회는 구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편성 집행하는 지를 심의 감시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의회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역대표자들이 모인 민의의 집단이며 집행부가 주민의 세금으로 구정을 이끄는 데 대해 감시와 감독으로 견제를 잘해달라는 주민으로부터 임무를 서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원들이 공부하며 연구하는 전당이 되어야 하며 행정부를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의정에 대한 자질을 함양하고 다각적으로 전문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인 의회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회의장에서 격론과 찬반의 충돌은 필연적인 양상이라고 하겠지만 의정과 구정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간의 싸움은 있어서는 안되며 서구가 발전하고 서구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된 제6대 서구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 글을 쓰는 까닭

검단3동 허 기

내가 사진을 찍는 까닭은  
오늘날의 내 모습을 촬영하여  
뒷날, 그 시절 내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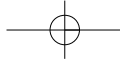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내가 글을 쓰는 까닭은  
오늘날의 내 생각을 기록하여  
뒷날, 그 시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내 육신을 사진으로 촬영하듯  
내 정신을 글로 기록하자

먼 훗날  
오늘 쓴 글을 보며  
내 젊은 날을 돌이키고  
빙긔이 웃을 때 있으리

내가 글을 쓰는 까닭은  
나의 오늘을 기록하여  
나의 實錄을 만들고자 함이다





공무원 한마당 | 수필



# 쌍둥이, 그 중에 딸아이 이야기

총무과 송문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중학생이 된 쌍둥이와 알콩 달콩 지내던 때가 엇그제 같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이 10살 때 써놓았던 쌍둥이의 어느 날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입가엔 미소가 떠오르며 그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딸아이로 인하여 생긴 일이었지만, 딸만 꾸짖으면 될 것을 아들놈까지 텀으로 야단을 쳤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욕심도 많고 차분한 딸아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줄곧 5분 빨리 태어난 제 오빠보다 어느 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잘하였답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아들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아내의 속을 어지간히도 애타웠지만, 딸아이는 입학 1년 전에 이미 한글을 깨우쳐 제 오빠가 틀린 곳이 있으면 곧잘 지적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전래동화, 알기 쉬운 역사책, 세계민화집, 백과사전 등 수십 권의 전집을 할부로 딱하니 들여 놓았습니다.

퇴근해서 보니 아이들 책장엔 번쩍번쩍한 아

이들 책들로 채워져 있고 볼품없던 몇 권 안 되는 내 책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싱싱한 전집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난 후 그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였던 아들 녀석의 행동에 조그마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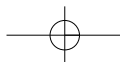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놀고 또 놀다 지친 아들 녀석이 장난삼아 전래동화 한권의 책장을 이리저리 넘겨보더니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엇드려 발장구까지 치면서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짓말 약간 보태, 순식간에 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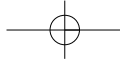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싫증을 잘 내고 자발성 없는 놈이라 몇 조금이나 가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할부 책을 붙잡고 발장구 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한달이 못돼서 할부 책 중 전래 동화 한질을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헌데 이 정도까지가 딱 좋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책에 빠져들면 들수록 우리부부의 행복한 고민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아들 녀석의 엉뚱한 질문이었고 아내는 며칠 못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엄마! 물어볼게 있는데?”라고 할라치면 아내는 아들의 말을 딱 막아버리고는 “네 아빠한테 물어봐!”하거나 “책에 나오는데 뭘 물어봐!”라고 편잔을 주고는 얼른 방으로 직행,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도 아들 녀석은 벌써 한 시간 전에 자기 할일 다해놓고 거실에 엎드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극 “대조영”을 보고 있는데 딸아이는 그 때까지도 하품을 연신 해대며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참 뒤에 동영상을 끝내고 일어서는 딸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벌써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혜진이 영어 테이프 들어!”라고 다그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귀를 후벼 팝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해서 “혜진, 승현, 이놈들 방으로 들어와!”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니 겁을 잔뜩 먹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왜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수학이 어려워서 그래?”하고 물었더니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 그런 것이지?”

딸아이는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 또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알았니?” 했더니 얼굴까지 빨개지며 딸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작 10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밀려오는 잠을 참고 공부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꾸중을 내고 있으니 이

런 이기적인 나를 탓하기라도 하듯 창 밖으로 번쩍하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안방에서 모두 함께 자려고 이부자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먼저 자라하고 말하고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정이 다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누우며 딸아이를 꼭 끌어 안아주니 자는 줄만 알았던 딸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혜진아 왜 그래?”하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이 딸아이 때문에 같이 혼났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제 엄마 옆에 누워 있는 아들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까지 골며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때문에 오빠까지 혼난 것이 미안했는데 아들 녀석까지 화를 내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분하기도 해서 그때까지 잠을 못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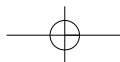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미안한 마음에 안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딸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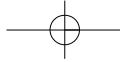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눈물에 젖은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어린 딸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자존심도 있는데, 한 때의 감정으로 크게 화를 낸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딸아이가 그 때의 못난 아빠를 기억하고 있거나 앓을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꿈을 펼치며 행복하길 빕니다.





함께 사는 세상 | 커피빵빵

# 열아홉 승미의 사부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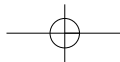
아픈 아버지위해 간이식  
요리사 꿈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이 된 딸은 생계로 길까페 열고  
한파와 단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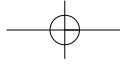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지난 1월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5회에 걸쳐 KBS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열아홉 승미의 희망 커피’의 주인공 이승미양이 2월24일 서구청 앞마당에 이동출장 카페를 열어 서구청을 찾는 주민과 구청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승미양은 지난해 9월 간 질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위해 반납받은 등록금으로 0.5톤 트럭을 구입해 가정동 중앙시장 앞에서 ‘커피빵빵’을 운영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실들이 인간극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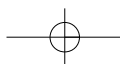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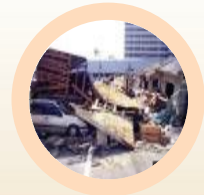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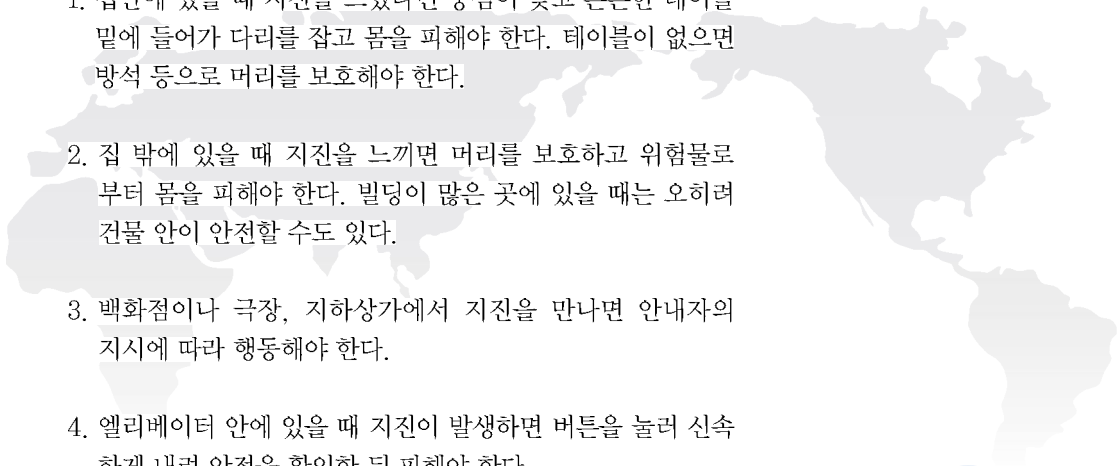
이날 시민들은 이승미양이 직접 만든 커피를 사마시며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효심 많은 승미양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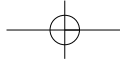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10가지 !!

1.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다리를 잡고 몸을 피해야 한다. 테이블이 없으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2.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해야 한다. 빌딩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오히려 건물 안이 안전할 수도 있다.
3.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에서 지진을 만나면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뒤 피해야 한다.
5. 전철 안에서는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돼 있는 물건을 꼭 잡아야 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통제구역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라디오를 켜 놓고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 산이나 바다에서는 산사태나 해일 등에 주의해야 한다. 위험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8.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부터 해라.
9. 피난은 마지막 수단이다. 대피는 걸어서 하고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10. 올바른 정보를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라. 라디오나 방재기관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서·구·명·소

## 검단선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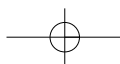
지난 2008년 11월 27일 서구 원당동에 문을 연 검단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전문박물관으로써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제작하고 사용되었던 발굴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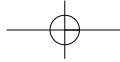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전시실에는 각 시대별 실제 유물과 함께 모형과 디오라마들이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았다.

또한 각각의 발굴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되고 있어 박물관을 찾는 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상시전시실외에 모형 유물들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학습실과 도서코너가 있으며, 자연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하늘정원과 야외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무쪼록 서구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검단선사박물관의 관람을 통하여 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세부 소개

\* 제1전시실 -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역사시대 유물(도토류, 골각류, 옥석유리류 등) 180여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3D영상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제2전시실 - 동양동, 원당동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집터 유적 7기를 복원해 놓은 공간으로써 집단 지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

\* 2층 체험학습실 - 선사시대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선사문화체험장이 있으며 발굴작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발굴체험장이 있다. 또한 도서실도 준비 되어 있다.

\* 야외공원 - 박물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널무덤 3가지가 전시되어 있다.

\* 천연비누로 만나는 선사시대 - 집단선사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천연비누로 만들어 보면서 어린이들의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도모시키고자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 어린이문화재 그리기 대회 -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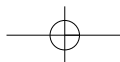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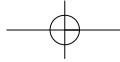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박물관 행사 및 교육

\*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 - 평소 어린이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선사시대와 고고학에 쉽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참가 어린이들은 먼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고고학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을 받은 후, 토기를 비롯한 선사시대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복원하게 된다.

### 관람안내

- 개관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가능)
- 사진촬영가능여부 - 가능함
- 휴관시간 -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제외)
- 관람료 - 개인 : 400원 / 단체 : 200원





유용한 정보 | 마실거리 야외무대



# 마실거리 야외무대 무료 사용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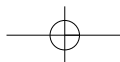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우리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마실거리 야외무대를 2011년 4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 하오니 관심있는 분이나 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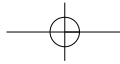
- ▶ **무대위치** :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 (면적 : 271㎡ <가로 19.4m×세로 13.9m>)
- ▶ **개방기간** : 4. 1 ~ 6. 30, 9. 1 ~ 10. 31 (혹한기, 혹서기 제외)
- ▶ **공연횟수** : 주 1회(1시간내) ※ 야외무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공연횟수 제한
- ▶ **공연시간** : 주중 12:00 ~ 20:00 / 주말, 공휴일 13:00 ~ 20:00
- ▶ **공연진행** : 신청팀중 공연승인을 득한팀에 한하여 공연진행
- ▶ **음향장비** : 서구청 야외무대 음향장비 지원(용역업체 운영)
- ▶ **대 관 료** : 없음

## ★ 야외무대 신청절차

<b>야외무대 사용신청</b>	매월 1~15일까지 익월행사분 신청 (타부서, 일반인 → 문화관광체육과)
<b>사용승인</b>	신청서 검토 및 승인 (매월 20일한) ★ <b>우선순위</b> ★ 1. 구행사 2. 일반인(선착순 접수팀중) 1) 서구민 또는 서구단체 우선   2) 최초신청자 우선 (문화관광체육과)
<b>사용승인 현황 용역업체 통보</b>	익월분 행사일정 용역업체 통보 (매월 20일한) (문화관광체육과 → 용역업체)
<b>야외무대 행사진행</b>	승인된 행사에 한하여 야외무대 음향장비 운영 (용역업체)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서구청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이야기

# 석남2동 거북골 도서관 개관

## 책도 읽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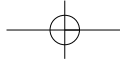
2011년 2월 22일 인천 서구 석남2동이 주민센터 건물을 고쳐서 “거북골 작은 도서관”을 완공해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거북골 작은도서관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문화의 제공”이라는 목표로 석남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도서관 비교 시찰, 도서관 명칭의결, 건물 리모델링, 도서구입 등 1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주민센터 본관 2층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시설물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작은 도서관은 1만여권의 도서를 구비했으며, 시청각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린이 정기간행물을 비치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문화 공간으로 태어나게 됐다.

한편 고재경 석남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동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도서관 개관으로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책도 읽고 쉬는 등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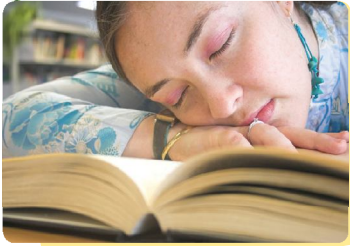




봄철 건강상식 | 봄철 건강관리요령



# 봄철건강관리요령!!



## 봄철 건강관리

봄은 따뜻해진 날씨에 방심하면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봄이면 흔히 찾아오는 각종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춘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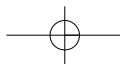
생동감을 느껴야 할 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춘곤증이다.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지면 춘곤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춘곤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을 못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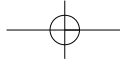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춘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침에 가볍게 조깅이나 맨손체조를 하고 일과 중에도 2~3시간마다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점심식사 후에는 실내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춘곤증은 비타민 B1이 부족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타민 B1이 충분한 콩, 보리, 팥 등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다. 현미는 흰쌀에 비해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B를 두 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

또한, 신선한 나물을 많이 먹어 비타민 C와 무기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한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을 많이 먹게돼 '식곤증'까지 겹치게 된다. 아침은 생선, 콩류, 두부 등으로 간단하게 먹어 점심식사의 영양과 양을 분산해주고, 저녁에는 잡곡밥, 봄나물 등의 채소, 신선한 과일로 원기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 낮에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겠다고 휴일에 잠만 자면 오히려 다음날 더 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호흡기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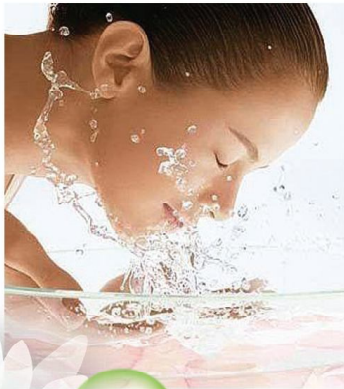
봄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기에 많이 떠다니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므로 호흡기 증상 환자가 많아진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더운 한낮에 밖에서 놀거나 운동을 하다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일교차가 심한 봄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아침과 저녁에는 체온을 보호하고 땀의 흡수가 좋은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나 지저분한 장소에서 놀아서 땀을 흘린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운동이나 놀이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근본적 치료법은 없다. 이때는 꽃가루가 날리기 약 2주전부터 눈, 코, 기관지 점막에 예방약을 뿌려서 치료한다. 심한 알레르기인 경우 면역주사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4~5년에 걸쳐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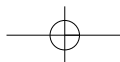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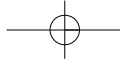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피부 건조증



봄에는 기온이 높아져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한다.

얼굴을 씻거나 샤워할 때 뜨거운 물보다는 피부온도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특히 피부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비누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보습 로션은 피부 조건에 따라 묽은 것과 짙은 것을 구별해 써야 효과적이다. 또한 너무 잦은 목욕 및 사우나와 때 수건 등으로 피부의 때를 벗겨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봄철 건강상식 | 봄철 건강관리요령



## 자외선과 피부

봄에는 겨울철보다 자외선이 더 강해지는 데다 겨울철에 자외선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었던 피부가 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자외선은 피부 화상과 기미, 검버섯, 주근깨, 피부 주름 등 색소 침착과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모자, 양산 등을 사용하고 자외선차단제를 충분히 규칙적으로 발라 자외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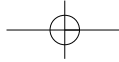
# Spring



## 황사 발생시 질병예방 · 관리

1.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특히 천식환자, 노인, 영아, 호흡기 질환자 등)
2.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는다.
3.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옷을 착용한다.
4. 콘택트 렌즈 사용자는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5.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눈물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한다.
6.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에 습도를 높인다.





#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에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입니다.

## ●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 ▶ 조사기준일 : 2010. 12. 31.
- ▶ 조사기간
  - 준비조사 : 2011. 5. 16. ~ 5. 18.(3일간),
  - 본 조 사 : 2011. 5. 23. ~ 6. 24.(25일),
  - 인터넷조사 : 2011. 5. 16.~5. 31.

## ● 조사범위 및 대상

한국표준사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의 모든 사업체(약 330만개)

## ● 실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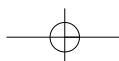
주관기관 : 통계청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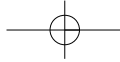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인터넷 조사 병행)

## ● 조사항목

- ▶ 공통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전자상거래여부, 사업실적(매출액, 사업(영업)비용), 유·무형자산, 녹색산업활동 여부
- ▶ 특성항목 : 산업종류 별로 다름





### 인터넷 조사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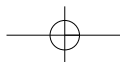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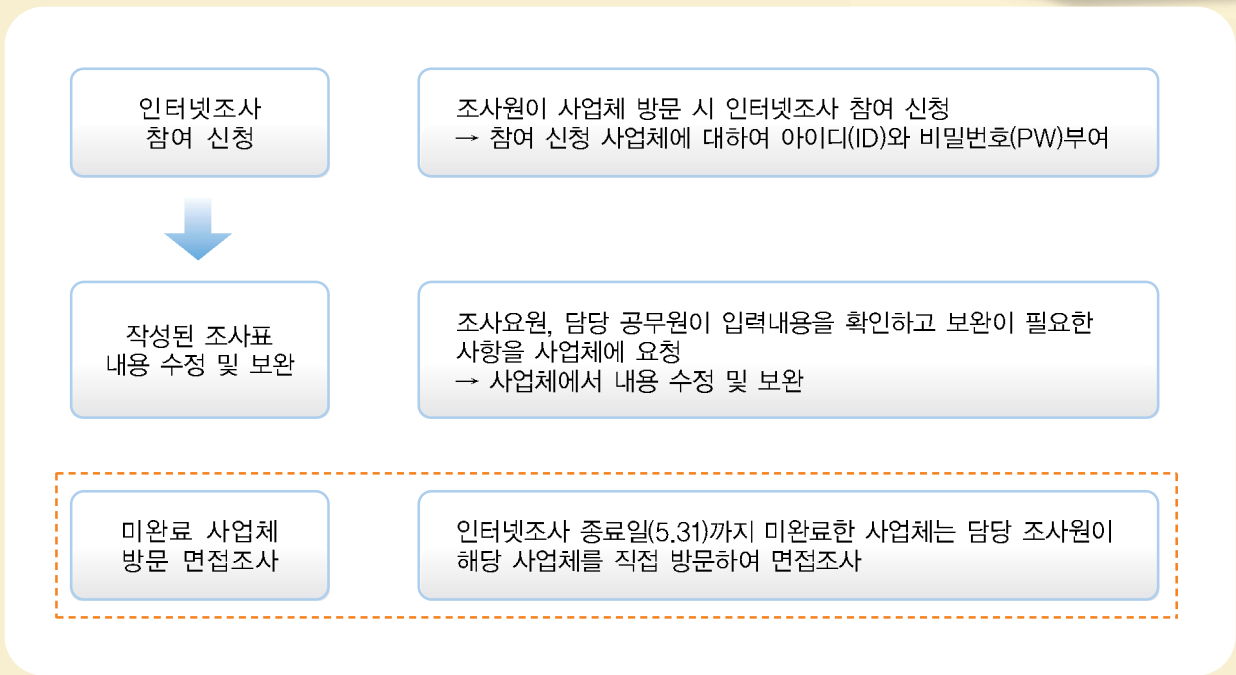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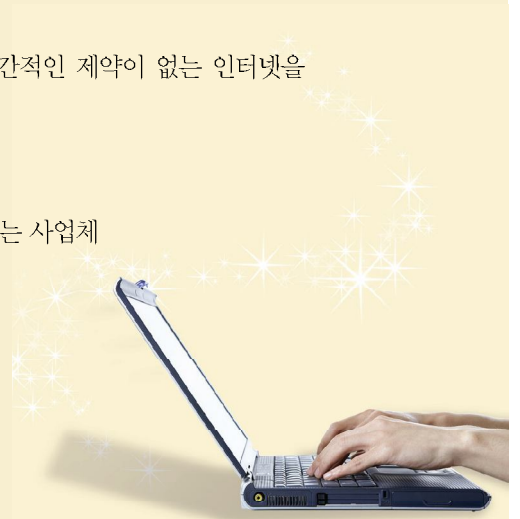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국내의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총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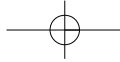
#### ● 조사목적

- ▶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

#### ●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기를 원하는 사업체
- ▶ 특히 종사자 수 1 ~ 4인 소규모 개인 사업체, 공공행정기관, 공교육기관 등이 집중 적용 대상임
- ▶ 조사기간 : 2011. 5. 16. ~ 5. 31.





##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 ● 주요 업무 단계별 내용

#### ▶ 인터넷조사 참여 신청

- 조사원이 준비조사기간(5. 16.~5. 18.) 중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인터넷조사 방법 및 절차를 설명

#### ▶ 홈페이지 접속 및 인터넷조사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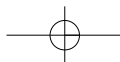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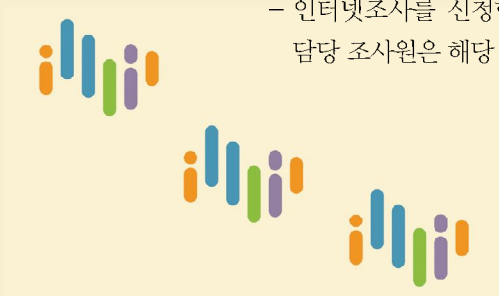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http://ecensus.go.kr>) 접속하여 『인터넷조사』 클릭
-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비밀번호는 접속 후 변경 가능)
- 부여받은 ID와 PW로 입력하였으나 로그인이 안 될 경우 경제총조사 상황실(콜센터) ☎ 080-200-2011 로 전화 문의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경제총조사 상황실(콜센터)로 연락하여 아이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재발급 받아 로그인

#### ▶ 작성된 조사표 내용 수정 및 보완

- 조사관리자는 인터넷조사 기간(5. 16. ~ 5. 31.) 중 인터넷 참여사업체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원을 통해 사업체에 해당 내용을 확인
- 단, 5. 19. ~ 5. 20. 에는 조사관리자 업무를 총관리자 또는 조사지원관리자가 대행

#### ▶ 미완료 사업체 방문조사

-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 공무원은 5월 31일에 인터넷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한 사업체 현황을 최종 확인
- 인터넷조사를 신청한 사업체가 조사표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담당 조사원은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 실시



## 투 / 고 / 안 / 내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분야 :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발행주기 : 1년 4회
- 분 량 : 원고지 7-8매 내외
- 제출기한 : 수시접수
- 기타사항 :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 보내실곳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

## 의회 방청 안내

### 방청을 하시려면

-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방청문의 :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560-5853)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깍연행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 원	진 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비라는 비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 요건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과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